

'매춘 강요'...인터걸은 절규한다

“아줌마가 왜 도망치려고 했냐고 물었을 때, 난 말했어요. 한국여자들이 우리를 항상 무시하고, 아줌마도 나에게 항상 춤을 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난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난 오가전에 섹시한 댄스를 추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 벗은 몸으로 춤을 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해보진 않냐고요? 없어요. 아줌마는 항상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섭기만 해요. 난 이곳에 있는 게 싫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필리핀 여성 Q양, 22세)

“우리가 주스값을 받지 못하는 달에는 아줌마가 음식값으로 만원을 줘요. 한번은 다른 아가씨들이 8잔을 파는데 내가 7잔을 팔았더니 아줌마가 막 화를 냈어요. ‘넌 일을 하는거냐’ 며. 그날밤 아줌마는 나에게만 설거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6개월동안 한번도 휴일이 없었어요. 예전에 아가씨들은 휴일이 있었대요. 하지만 휴일이란 게 아침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게 휴일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러시아 여성 S양, 25세)

“월요일인가 어떤 미군이 주스한잔을 사주면서 VIP룸으로 오라고 했어요. 주스를 가지고 갔더니 그가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는 바지지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편하는 거냐’ 고 소리 질렀더니, ‘너 입으로 해줄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고 소리치고 카운터로 가 주스티켓을 반납했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필리핀 여성 A양, 23세)

일명 ‘인터걸’ 이라 불리는 유흥업소의 외국인 여성들의 현실이 적참하다. 댄서나 가수, 아니면 웨이트리스로서의 직업 정도를 생각하며 한국을 찾은 이들은 이렇게 매춘을 강요받게 될 줄, 그리고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줄을, 그리고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줄 몰랐다. 이들의 꿈은 산산조각났지만 그렇다고 당장 돌아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들인 비용을 갚아야 하고, 최소한의 돈이라도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하는 막막한 현실 때문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는 대답만 되풀이한다.

합법적 입국, 하지만 고강도 착취구조

이런 여성들의 인권에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미군기지 주변 송탄, 동두천, 의정부, 군산, 부산 5개 지역에서 이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이면서 20여명과의 면접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11월12일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발표했다. 교회여성연합회의 보고서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들의 입국은 문서위조 혐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취업은 현지에 나가 있는 국내 프로모션 혹은 에이전시와 국내 유흥업소의 협회인 한국관광특수협회간의 거래로 성사되는데, 현지의 에이전시는 댄서 가수 모집공고를 통해 여성들을 모으고, 특수협회는 이들 여성에게 연예인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국적은 러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 다양하다. 나이는 22세에서 26세가 대부분.

많은 경우가 가족의 생계책임자인 이들이 한달에 받는 월급은 계약상으론 6백달러에서 8백달러지만 실제 액수는 250-300달러로 한달에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 여성들은 집대부로 근무하면서 주스를 팔아야 한다. 주스는 한잔에 5천원. 이가운데 여성들은 2천원에서 3천원을 받게 된다. 주스 판매에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벌금이 따른다. 할당량은 업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루에 10잔, 주말엔 30잔, 일주일엔 100잔 이상. 어떤 업소에서는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여성에게 그날의 주스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날에는 음식값으로 만원을 받는다. 주스판매 할당액 못 채우면 돈도 못받아

근로시간은 계약서상으로는 하루 최고 8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길다. 업소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주중에는 낮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말에는 낮1시부터 새벽2시까지이다.

휴일은 계약서상에서만 존재한다. 한달에 4일의 휴일이 있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휴일을 갖는 것” 이라고 털어놓을 정도. 물론 업소에 따라서 한달에 두번까지 휴일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또 업소에서 제공하는 휴일이란 것이 완전한 하루의 휴일도 아니다. 영업이 없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가 고작. 이들에게 외출이라는 것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휴일없는 장시간 노동 속에서 지각이나 결근 또는 외출을 할 경우 여성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결혼을 할 경우도 돈을 내야 한다. 지각의 경우 5분 단위로 2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하루 무단 결근을 하면 60달러의 벌금이다. 외출의 경우엔 23만원 또는 1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또 12시까지는 돌아와야 한다. 결혼은 계약후 3개월까지는 절대 할 수 없으며 3개월후엔 3천5백달러에서 5천달러를 물어야 한다.

스트립쇼 . 매춘 강요 “몹시 수치감 느껴” 이들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곳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계약서에는 ‘위생적인 숙박’과 ‘식사 무료제공’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여관에서 그룹을 지어 생활하거나 업주가 구해준 집에서 생활한다. 집세와 음식값 등 생활에 드는 비용역시 이들 여성들이 지불한다.

열악한 환경도 큰 어려움이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런 것은 자신을 매춘부로 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대답한다. 애초에 엔터테이너로 계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이들 여성들은 가수나 댄서로서의 직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자신을 매춘부로 대하더라는 것이다. “꿈에도 몰랐다” 는 것이 이들 여성들의 한결같은 대답. 이들은 춤을 출 때도 야한 옷을 입고 취야하고, 스트립쇼와 운락행위 등을 강요받는 것에 “몹시 수치감을 느낀다” 고 털어놓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업주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교회여성연합회는 “이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최악의 대매춘 케이스” 라고 지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입국해 아무런 연고자도 없어 도움을 전혀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업주들은 사법처리가 마땅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회여성연합회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계'가 빠지면 장사가 안된다고요?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 영화평론가 하재봉이 각색·연출을 맡은 연극 '내게 거짓말을 해봐', '93년 연극계에 외설시비를 불러일으켰던 '미란다'의 연출가 문신구씨가 연출한 연극 '로리타'.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앞의 두 작품이 음란물 판정 받아 작가인 장정일씨가 구속된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했고, 마지막 작품 역시 러시아 출생 미국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작이 문학작품'이라는 점. 둘. 모두 '음란물' 시비가 일 정도로 파격적인 노출과 상식선을 벗어난 과도한 성

행위 장면을 담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셋, 이들 모두 나이 어린 '미성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성적 유희를 즐긴다는 점이다.

영화 '거짓말'은 지난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해 2개월까지 등급보류 기간이 단축됐지만, 연내 상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와 등급위원회의 '심의' 행태를 문제삼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영화가 "원작의 정치적 코드는 모두 삭제해버리고 20년 나이 차가 나는 두 남녀의 성적유희만 극대화한 포르노그라피"가 된 데 반발한 영화평론가 하재봉씨가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씨어터제로에서 공연하고 있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작품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한 증폭된 호기심을 등에 업고 인기리에 공연 중이다. 또 실제 극중에서 16세 소녀가 '알몸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된 '로리타' 역시 앞의 작품들과 더불어 넘치려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편승해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예로 비디오물 제작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는 '미소녀 자유학원 시리즈'로 세일러복 차림의 여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뿐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예로 비디오물의 80%가 어린 소녀를 등장시키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여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올 초부터 심각한 사회 병폐로 거론되기 시작한 '원조고제'나 '영계(나이 어린 여성을 이르는 속칭)산드롬'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 사실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문제는 심심찮게 일간지 사회면을 장식하는 만큼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며 성

계에서 '10대 매매춘고제의 명단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주장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더 어린 여성을 원하는 남성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10대 매매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남성들이 '영계'를 찾는 이유를 우리 사회의 뿌리깊이 박혀있다.한 번도 남의 손을 타지 않은 어린 여성의 '처녀성'을 가로채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다. '거짓말'에서도 여주인공 '와이(Y)'가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부각된다. 물론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한 매매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들 예술작품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기에 무리수가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런 거리낌없이 10대를 성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들 작품은 그 예술적 함의와 상관없이 어린 여성을 성의 노리개로 삼는 우리 사회의 '영계 박람회'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 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성 개방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미처 성적 주체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성을 상업화하고 이를 즐기는 사회, 그 결말이 불 보듯 뻔하다.